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창· 32:24-32

홀로 남은 야곱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물과 가축들을 종들에게 맡겨서 여러 때에 나누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모두 보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깊어져 갔고, 야곱은 고독해지기만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해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대상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싸움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천사가 사람보다 힘이 강한데도 질 것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위골이 되고 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야곱

이날의 야곱과 천사의 싸움을 상상해 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고요함이 감돕니다.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을 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모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을 뿌리치기 위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천사가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어떤 천사는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어떤 천사는 심판을 집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천사가 관여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가지고 온 천사는 야곱과 이야기를 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와 씨름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뿌리치고 가신다고 할 지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 또 다른 사실을 살펴보면 야곱은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엉터리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터리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려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과의 씨름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천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엉터리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천사가 축복도 하지않고 갈리가 없습니다.

자격없는 우리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엉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제일 먼저 교회에 와 앉아 있더라도 우리는 조금씩은 엉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만 천사를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새벽까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야곱안에는 축복을 받기전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담아 주거나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핑계를 타인에게 돌릴 뿐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정치계의 야당과 여당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책임을 돌리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게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더구나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도 그날 밤 그렇게 심하게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붙잡고 새벽까지 씨름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하고 강간하는 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에는 교만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의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 될 수 없으며 죄가 있는대로, 우리가 행한대로 심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천사를 놓지 않자 드디어 천사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천사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명함도 내놓고 이력서도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입니까?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기록된 신체적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네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면 쓴 사람이고 우리의 모습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가지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학력, 경력, 지식으로 자신을 위장해 보지만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는 순간, 즉 죽음앞에 서있는 순간, 홀로 서있는 순간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야곱은 무엇이든지 움켜쥐고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는자,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름의 의미대로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의 뼈격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상징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은혜로 살면 평온할 텐데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천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다.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 남의 인

생을 착취하면 사기꾼입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한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고 공연히 작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작명소 같은 곳을 통해 이름을 바꿔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바꾸는 이름은 바꿀 수록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옛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사람, 남을 사기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와 에베소서 4장 23,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이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옛 사람, 야곱과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더러운 땅과 바다와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복을 준다는데도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갖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이므로 그분의 속성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축복의 근거는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즉, 그분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대신 직접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역지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며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굳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터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엉터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웃기시는 척 하시며 응해주십니다. 알면서도 속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찌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찌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십시오.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번 주일예배만 참석합니다.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졸업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남을 돕기도 하시고,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축복을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결코 관객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야곱은 구경꾼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두번째로 배울 점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요한 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적 결단을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우려고 해도 우리의 결단이 없이는 안됩니다. 소를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은 소가 직접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들어맞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물을 떠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물을 떠다 잡수십시오. 조금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속에 임하는 기쁨

새벽기도에 나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리니까, 우선 주일날만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큐티, 일대일, 봉사 등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기쁨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1 절을 보십시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축복받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보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복받으며 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